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2021.10.26

아시아 증시, 테슬라 효과로 전기차 관련주 강세

김석환 seokhwan.kim@ 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 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코스닥, 기관·외국인 순매수에 1000선 회복

-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미 증시 호조와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코스닥 1000선 회복.
- 테슬라 효과로 2차전지 관련주 강세. 코스닥에서 디지털, 오락업종 상승. 위드코로나에 따른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반영. SK하이닉스 3Q21 호실적 발표에 강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낸드부문 흑자 전환 효과
- 달러/원 환율은 하락 지속하며 1160원 중반대 기록. 증시 호조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우위 및 위안화 강세 지속 영향

아시아 시장 장중 리뷰: 중화권 증시, 테슬라 효과 전기차 관련주 강세

- 일본 닛케이지수 강세. 코로나 확진자수 감소 및 자민당 의석수 절반이상 확보 예상에 따른 총선 불확실성 완화
- 중국 증시 주요 지수 강보합권. 중국 류허부총리가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화상통화를 통해 거시경제, 관세 논의 등을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지며 투자심리 완화. 또한 월말 대비 7일물 역RP를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 지속. 금일 100억 만기, 2000억 위안 공급. 기업별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 장세 뚜렷
- 테슬라 호재 속 중국 2차전지 밸류체인 급등. 주요 기업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뿐만 아니라 비야디(002594.SZ)가 11월부터 배터리 가격 20% 이상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 반영. 칭다오맥주(600600.SH) 등 맥주업종 강세. 최근 음식료 대표 기업별 가격 인상 추세로 맥주도 4분기 가격 인상 예고
- 홍콩 주요 지수 하락. 샤오펑(09868.HK), 리샹(02015.HK) 등 전기차 관련주 강세. 부동산세 개혁에 따른 부동산업종 하락 지속. 알리건강 (00241.HK)이 3분기 실적 적자 예고에 따라 -10% 가까이 하락

미 증시 전망: 초대형주(Mega cap) 실적이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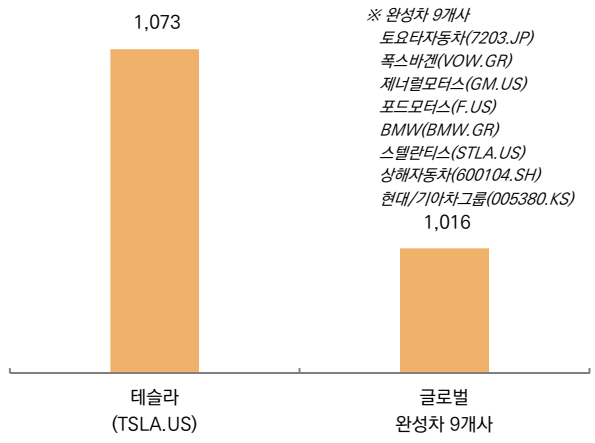
- 초대형주(Mega cap) 실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테슬라(TSLA)가 3분기 호실적 발표에 이어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상향과 렌트카 회사 허츠(Hertz)가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주문을 하면서 12% 넘게 상승. 미국 증시 역사상 6번째로 시가 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 시총 1조 달러 초과 기업(10/25 기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 테슬라
  ** 페이스북(FB)도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으나 최근 주가 부진으로 1조 달러 하회
  -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완성차 9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을 뛰어 넘어. 국내 현대/기아차의 경우 각각 상장되어 있지만 단일 그룹으로 계산
  - 미국 3대지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초대형주의 경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 또한 3대지수 시가총액 비중 상위 50%를 차지하는 종목 수는 S&P 500의 경우 30종목(5.9%), 나스닥 9종목(0.3%),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4종목(13.3%) 밖에 되지 않아 결국 초대형주의 실적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

- 낮은 수준의 VIX지수,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낙관은 주의
  - 10월 초 25 수준을 상회했던 VIX지수는 전일 15 레벨까지 하락하며 단기 저점 테스트를 하는 모습. VIX의 단기 과매도는 S&P 500의 단기 과매수를 의미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경우 미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도
  - 실제 2017년 VIX지수가 10에서 15사이를 오가는 동안 그 해 S&P 500은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특정 구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15를 하회하며 증시가 신고가를 달성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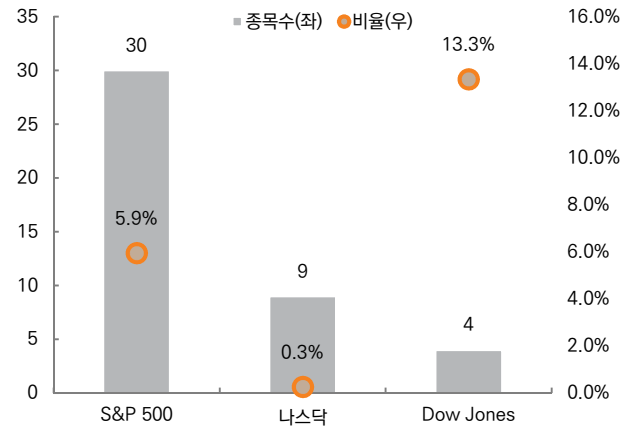
- 한편 시장의 지나친 낙관에 대해 주의를 해야한다는 시그널도 보여.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에서 발표하는 기관투자자 신뢰지수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시장의 주요 고점에서 100을 상회. 7월 이후 3개월 연속 임계값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때론 주식시장 투자심리의 위협이 될 수도

그림 1. 테슬라 VS. 글로벌 완성차 연합 시가총액 비교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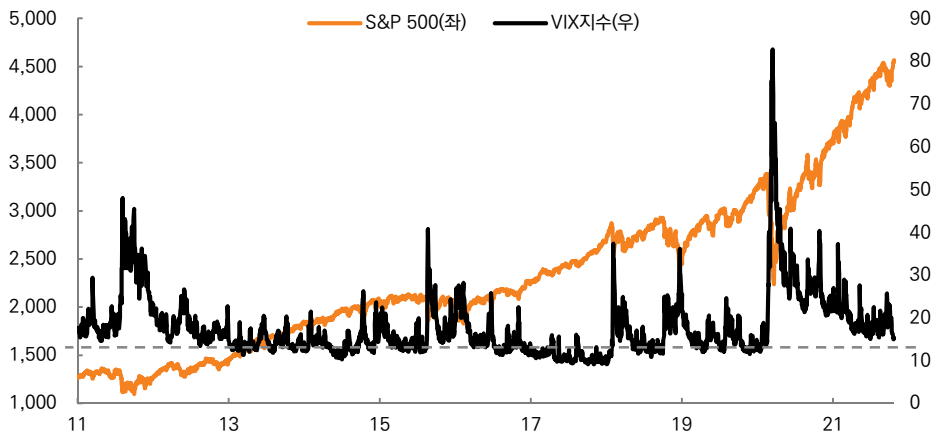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시총 비중 상위 50% 종목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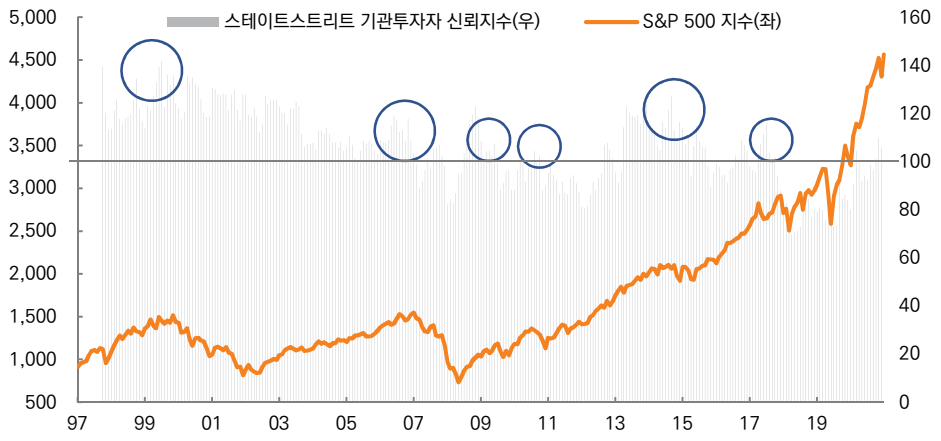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10월 초 고점대비 39% 하락한 VIX 지수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4.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낙관은 조심할 필요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